

## 밴쿠버, 저소득 계층을 위한 저렴주택 공급 계획

<http://vaha.ca/>

<http://vancouver.ca/news-calendar/Public-invited-to-get-firsthand-look-inside-temporary-modular-housing.aspx>

<http://vancouver.ca/news-calendar/city-moves-forward-with-first-temporary-modular-housing-project.aspx>

<http://vancouver.ca/news-calendar/Vancouver-Affordable-Housing-Agency-to-build-250-homes.aspx>

### 모듈러 주택 프로젝트

캐나다 밴쿠버 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듈러 주택의 모델이 시민들에게 처음 공개되었다. 시 정부는 메인 스트리트에 실제로 조성될 모듈러 주택의 모델을 록슨 광장(Robson Square)에 전시해 시민들이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였다.

밴쿠버 시와 VAHA(Vancouver Affordable Housing Agency)는 최근 밴쿠버의 주거난과 시민들이 겪고 있는 주택구입능력 위기(housing affordability crisis)에 대응, 일종의 조립식 주택인 모듈러 주택을 조성해 저소득층에 임시 거처를 제공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모듈러 주택은 조성 비용이 저렴할 뿐 아니라 완성된 구성 요소를 크레인을 통해 부지에 조립하는 방식으로 지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완공이 가능하고, 완공 즉시 주민들이 입주할 수 있다.

메인 스트리트의 모듈러 주택은 2017년 초 착공될 예정으로, 4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3층 규모의 건물로 지어진다. 각 실은 250m<sup>2</sup> 면적에 개인 침실과 부엌을 갖추고 있다.

###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임대주택 조성

밴쿠버 시유지 3곳에 총 250가구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이 조성된다. 임대주택은 저소득층·중산층 주민과 노년층의 수요에 맞추어 조성되며 임대료는 시세보다 조금 낮은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이번 임대주택의 65%를 2개 또는 3개 이상의 침실을 갖춘 방으로 지어, 밴쿠버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려는 가족들에게 집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3개 사업지는 이스트 프레이저 랜즈(East Fraser Lands) 지역에 포함되는데, 이 지역은 주거시설은 물론 업무·교육·상업·오락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주거지로 개발될 예정이기도 하다.

한편 밴쿠버 시는 이번에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세 곳을 포함하여 시 소유의 20개 지역을 저렴한 주택 부지로 중앙정부에 제공한 바 있다.

밴쿠버  
메인 스트리트에 조성될  
모듈러 주택  
자료: VAHA 홈페이지  
(<http://vaha.ca/>)



## 시카고 리버워크 완공, 대중 공개

<http://www.riverwalkexpansion.com/index.html>

[https://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cdot/supp\\_info/chicago\\_riverwalk.html](https://www.cityofchicago.org/city/en/depts/cdot/supp_info/chicago_riverwalk.html)

<http://www.archdaily.com/798541/chicago-riverwalk-opens-to-public-returning-the-city-to-the-river>



©Kate Joyce Studios



### 시카고 리버워크

자료: [archdaily\(www.archdaily.com/798541/chicago-riverwalk-opens-to-public-returning-the-city-to-the-river\)](http://archdaily.com/798541/chicago-riverwalk-opens-to-public-returning-the-city-to-the-river)

미국 시카고 강을 따라 보행로와 공공공간, 레스토랑 등 상점, 다양한 문화·오락시설을 조성하는 ‘시카고 리버워크’ 프로젝트가 최종 3단계 공사를 끝으로 완공되었다. 시 정부는 지난 10월 3단계 구간을 대중에게 개방하고 기념행사를 열었다.

시카고 리버워크는 시카고 강이 미시간 호를 만나는 지점부터 왜커 드라이브(Wacker Drive)가 레이크 스트리트(Lake Street)를 만나는 지점까지 이어진다. 리버워크 조성에 앞서 왜커 드라이브의 폭 등을 조정하는 재정비 사업이 2002년부터 이루어졌고, 이때 리버워크 조성 공간 확보 등이 고려된 점을 감안하면 시카고 리버워크가 완공되는 데 15년 정도가 걸린 셈이다.

총 3단계에 걸쳐 조성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1단계 구간은 ‘미시간 호~스테이트 스트리트(State Street)’로 2009년 마무리되었고, 2단계 공사는 ‘스테이트 스트리트~라살 스트리트(LaSalle Street)’ 구간에 진행되어 2015년 완료되었다. 3단계 공사는 ‘라살 스트리트~레이크 스트리트’ 구간에 이루어졌다. 특히 2·3단계 구간에 포함되는 6개의 블록에는 각자 특성 있는 콘셉트와 테마를 부여하여 다양한 공간을 조성하였다.

### 블록별 테마와 조성 시설

| 단계  | 구간                 | 테마                   | 조성 시설 및 내용                                                                                                                                |
|-----|--------------------|----------------------|-------------------------------------------------------------------------------------------------------------------------------------------|
| 2단계 | 스테이트 st. - 디어본 st. | 마리나(Marin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레스토랑 등 상점</li> <li>수상택시, 관광용 보트 등 이용시설</li> <li>강을 향해 조성된 벤치 등 야외 좌석시설</li> </ul>                  |
|     | 디어본 st. - 클라크 st.  | 만(Cove)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카약 대여·정박 시설</li> <li>야외 좌석시설</li> <li>강물 범람 방지를 위해 강을 따라 식재</li> </ul>                             |
|     | 클라크 st. - 라살 st.   | 리버시어터(River Theater)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왜커 드라이브와의 보행 연결로</li> <li>휠체어와 유모차도 물 근처로 이동 가능하도록 조성한 경사로</li> <li>계단 중간 중간에 식재, 그늘 제공</li> </ul> |
| 3단계 | 라살 st. - 웰스 st.    | 워터플라자(Water Plaz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어린이들을 위한 바닥분수</li> <li>어린이 동반 가족 방문객과 보행자를 위한 야외 좌석시설</li> <li>다양한 종류의 상점</li> </ul>               |
|     | 웰스 st. - 프랭클린 st.  | 부두(Jetty)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유식 습지정원 등 서식생물과 자연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li> </ul>                                                   |
|     | 프랭클린 st. - 레이크 st. | 보드워크(Boardwalk)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왜커 드라이브와의 보행 연결로</li> <li>휠체어, 유모차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원만한 경사로 조성</li> </ul>                                |

## RIBA 건축상 수상한 뉴포트 스트리트 갤러리와 UTEC

<https://www.architecture.com/RIBA/Contactus/NewsAndPress/PressReleases/2016/DamienHirst'sNewportStreetGalleryWins2016RibaStirlingPrizeForTheBestBuildingOfTheYear.aspx>

<https://www.architecture.com/Awards/Awards2016/StirlingPrize/Home.aspx>

<https://www.architecture.com/RIBA/Contactus/NewsAndPress/PressReleases/2016/UtecWins2016RibaInternationalPrize.aspx>

<https://www.architecture.com/Awards/InternationalPrize2016/UtecUniversidaddeIngenieriaY Tecnologia.aspx>

영국왕립건축가협회(Royal Institute of British Architects: RIBA)는 2016 RIBA 국제 건축상에 페루 리마에 위치한 공과대학교 UTEC 캠퍼스를, 2016 RIBA 스텔링 상에 런던 남부의 뉴포트 스트리트 갤러리를 선정하였다. 올해로 21년째를 맞은 RIBA 스텔링 상은 매년 영국 건축계에 공헌한 작품에 대해 시상하며, 영국에서 아주 권위 있는 건축상 가운데 하나로 통한다. RIBA 국제 건축상은 매년 전 세계의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 2016 RIBA 국제 건축상: UTEC 캠퍼스

UTEC(Universidad de Ingeniería y Tecnología)는 페루 젊은이들의 활발한 사회이동을 목적으로, 엔지니어링 분야를 교육하고 인재를 길러내는 공학대학이다.

심사위원들은 두 주거구역의 경계선이면서 협곡 끝자락에 우뚝 솟은 이 '수직 구조의 캠퍼스(vertical campus)'가 대학의 설립 목적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현지 기후와 지형과도 조화를 이루고 있는 훌륭한 작품이라고 평하였다. 콘크리트로 지어졌지만 주변 지형과 어우러지며 일련의 구조가 층층이,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모습이 마치 페루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마추픽추'를 떠올리게 한다는 평도 있었다.

건축물은 여러 개의 프레임 구조가 연결되고, 그 사이사이에 교실 실험실 사무실과 같은 공간이 삽입되는 것과 같은 형태로 설계되었다. 이러한 프레임 구조는 필요한 내부공간을 충분히 만들어 내면서도, 건축물이 강한 개방성을 띠도록 하는 데도 기여하고 있다. 실제로 이 프레임 구조는 건축물 내부에서는 외부 도시공간을 조망할 수 있고 시민들이 건물 밖에서 건축물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도록 한다. 심사위원들은 이런 개방적인 구조를 "UTEC는 리마의 시민들에게 '전시(display)'되고 있다"는 말로 표현하기도 하였다.



UTEC 전경

자료: RIBA 홈페이지([www.architecture.com](http://www.architecture.com))



UTEC의 프레임 구조와 안쪽에 위치한 내부공간

자료: RIBA 홈페이지([www.architecture.com](http://www.architecture.com))

© Iwan Baan

### 2016 RIBA 스텔링 상: 뉴포트 스트리트 갤러리

런던 템스 강변 남부 복스홀(Vauxhall) 지역의 뉴포트 스트리트(Newport Street)는 웨스트엔드 공연산업의 중심으로 한때 호황을 누리다 쇠퇴한 거리다. 갤러리는 이 거리에 방치된 채 남아 있던, 극장의 배경과 무대를 만드는 작업장 건물 세 채를 리모델링하고 양 끝에 두 채의 신축 건물을 지어 완성하였다.

신축 건물은 붉은 벽돌로 외관을 마감하여 기존에 있던 건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한편 커다란 LED 패널을 활용해 현대적인 감각이 가미된 파사드를 완성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갤러리가 철로와 면하여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LED 패널과 파사드는 기차 이용자들에게 미술관을 각인시키고 방문을 독려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도 보았다.

다섯 개의 건축물은 연속적이고 일관된 조명을 통해 연결성을 가지게 되며, 정교한 디테일에 감각적으로 조성된 내부 계단(staircase)은 단순하고 잘 정돈된 통로에 생동감을 불어넣는다고 평가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통해 연결된 내부 공간은 개별 작품은 물론 규모가 큰 쇼와 작품도 담아낼 수 있는 넓은 공간을 만들어 낸다.

심사위원들은 더불어 뉴포트 스트리트 갤러리가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되고 있어 커뮤니티를 공고히 하고 활성화하는 데 기여하는, 지역의 자산이 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 뉴포트 스트리트 갤러리



거리에 늘어난 갤러리 건물과 파사드



갤러리 전시 공간



철로와 면해 있는 갤러리의 모습



갤러리 내부의 나선형 계단

© Hélène Binet

## 시애틀, 보행자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 속도제한 강화

<http://sdotblog.seattle.gov/2016/11/07/your-new-vision-zero-speed-limits/>

<http://www.seattle.gov/visionzero/speed-limits>

<http://usa.streetsblog.org/2016/09/27/seattle-city-council-approves-20-mph-speed-limit-on-residential-stree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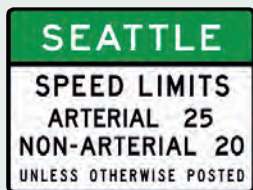
미국 시애틀에서는 11월 7일부터 강화된 도로 제한속도 규정이 시행된다. 지난 9월 시애틀 시의회는 주거지 주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간당 25마일에서 20마일(약 32km/h)로 하향 조정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하였으며, 시애틀 중심 도로의 제한속도도 시간당 30마일에서 25마일(약 40km/h)로 낮추기로 하였다.

이는 시애틀 시가 2030년까지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률과 심각한 부상을 줄여 '0'으로 만든다는 '비전 제로(Vision Zero)'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시애틀 교통부(Seattl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SDOT)는 매년 시애틀에서 20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며 150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고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차량의 속도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부상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교통안전을 위한 정책 추진에 있어 제한속도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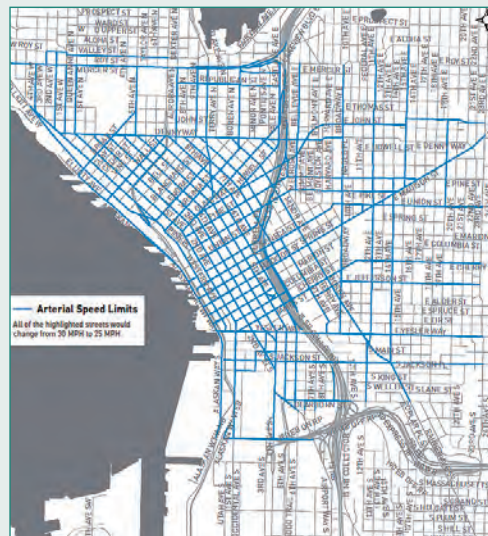
SDOT에 따르면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가 시간당 20마일 속도의 차량과 충돌할 때 살아남을 확률은 90%이며, 이보다 10마일 빠른 시간당 30마일로 달리는 차량과 충돌하면 생존 확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50%가 된다.

시 정부는 앞으로도 낮은 제한속도를 지속적으로 적용하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교통안전에 도모하는 등 심각한 충돌사고를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SDOT는 시민들과 도시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제한속도 규정을 널리 알리고자 표지판을 설치하고, 시애틀 경찰과 협조하여 순찰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 캠페인도 시행될 예정이다.



새롭게 설치되는 제한속도 표지판

자료: SDOT 홈페이지(<http://sdotblog.seattle.gov/2016/11/07/your-new-vision-zero-speed-limits/>)



제한속도가 시간당  
25마일로 하향 조정되는  
시애틀 중심 도로

자료: SDOT 홈페이지  
(<http://sdotblog.seattle.gov/2016/11/07/your-new-vision-zero-speed-limits/>)